

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(8.23)

1. 한국의 지소미아(GISOMIA) 파기 결정 관련

□ [일본 정부 동향]

- (수상관저) 아베 총리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두고 역내 평화 및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연대함과 동시에 신뢰회복을 위해 한일 청구권 협정을 포함, (한국 정부에게) 양국 간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요구할 방침임을 강조함.¹⁾
- (경제산업성) 한편 세코(世耕) 경제산업성 장관은 “(한국 정부의 결정은) 일본의 수출관리상의 행정 절차적 조치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를 연관지은 것으로,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” 라고 평가함.²⁾
- 한편 경제산업성 장관은 향후 대응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“지금까지 했던 것과 달라지지 않는다” 고 하였으며, 수출관리상 우대국인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를 지금까지 했던 대로 진행해 나갈 생각임을 밝힘.
- (방위성) 이와야 방위성 장관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과 관련하여 “북한이 반복하여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에 대해 잘못 판단하고 대응한 것이며,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” 고 하였음.³⁾
- 그러나 방위성 장관은 한일, 한미일 연대는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, 한국 측에 파기 결정을 재고할 것과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.
- 일본 외무성은 한국 정부로부터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발표함(8월 23일 오후 4시 기준).⁴⁾

1) 「安倍首相 「韓国は信頼回復に向け両国間の約束履行を」 『NHK NEWS WEB』 (2019. 8. 23).

2) 「G S O M I A破棄 世耕経産相 「受け入れられない」 『NHK NEWS WEB』 (2019. 8. 23).

3) 「G S O M I A破棄 岩屋防衛相 「失望禁じ得ず韓国に再考促す」 NHK NEWS WEB』 (2019. 8. 23).

4) 「G S O M I A 韓国側から協定破棄の通告」 『NHK NEWS WEB』 (2019. 8. 23).

- 지소미아는 11월 23일 오전에 정식 종료되는데, 외무성 관계자는 “법적으로 협정이 지속되는 기간(약 3개월)에도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(협정은) 유명무실화될 것” 이라고 발언함.
- 한편 닛케이의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, 현 단계에서는 과거 결정에 따른 추가 조치는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냉정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.⁵⁾

□ [일본 언론 동향]

-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, 일본 언론은 양국 관계에 타격을 주는 것 자체에 그치지 않고, 북한 및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안보의 근간이 되어 왔던 한미일 3국의 연대를 흔들 사태라고 논평함(日本經濟新聞).⁶⁾
- 또한 강제징용 및 수출관리를 둘러싼 한일 대립이 경제에서 안보에까지 번졌다고 평가함.
- 아사히 신문은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 강제징용 배상판결 및 수출규제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한일 관계가 한층 더 악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함.⁷⁾
- 또한 아사히 신문은 ‘상상외의 사태로 인한 충격’ 이라고 논평함.⁸⁾
- 한편 이번 한국 정부의 과거 결정을 두고 “일본의 대한민국 수출규제 강화를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둘러싼 보복조치로 인식, 대항 조치를 실시한 것” 이라는 평가도 존재함.⁹⁾

5) 「日韓対立、安保に波及、3ヵ国結束に亀裂、北朝鮮の核ミサイル対応、日本、対抗措置は考えず」 『日本經濟新聞』(2019. 8. 23).

6) 「日韓軍事協定を破棄—東アジアの安定揺るがす。」 『日本經濟新聞』(2019. 8. 23).

7) 「韓国、軍事情報協定を破棄 日本への輸出優遇除外、問題視 協定「国益に合わない」と判断」 『朝日新聞』(2019. 8. 23).

8) 「日本、想定外の対立深刻化 韓国、軍事情報協定を破棄」 『朝日新聞』(2019. 8. 23).

9) 「韓国：軍事情報協定破棄 対立、安保に波及 日本への輸出規制に対抗」 『毎日新聞』(2019. 8. 23).